

강신욱 (종교증거연구소)

논문요약:

학문을 통한 선교의 실제적 방법론

현재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의 감소로 활력과 희망을 잃고 있다. 본 논문은 그 문제의 주된 원인을 젊은 세대는 이미 전혀 다른 포스트 문화 속에 사는데 교회는 그에 맞춰 선교전략을 만들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에 매여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새로운 선교전략이 필요한데 첫째 경쟁 상대가 되는 세계관의 전제가 먼저 잘못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이미 가치의 상대주의 속에서 공통된 전제가 없어 대화의 다리는 끊어졌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신념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밝힌 후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두번째로 종교간 변증론이 필요하다. 포스트 모던 문화는 모든 종교는 동일하며 단지 관점이 다를 뿐이라는 편견을 갖는다. 그러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비기독교적인 종교의 비진리성을 드러내고 기독교의 진리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번째로 포스트모던 문화는 모든 진리의 주장은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논리에 열광한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 철학, 세계관의 실제로 그런 경우를 드러내며, 상대주의 문화속에서 외면당하는 대화 주제인 "절대진리"에 대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다. 네번째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징인 감성주의를 자극해 이야기와 이미지를 적극 만들고 또 사용해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진리에 관한 대화로 인도한다. 이 모든 선교전략의 구체적인 콘텐츠들은 각 분야의 학문 분야의 전문가, 지식인들이 연구를 통해 생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활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키워드: 포스트모더니즘, 선교전략, 변증론, 한국교회 젊은이, 학문

Kang, Shinwook (Religion Evidence Institute)

ABSTRACT:

Practical Methodology for Mission through Studies.

The current Korean church is losing vitality for the decrease of the young men' number. This thesis points out the poor cultural application of the church to the current postmodern culture as the main reason. We need new mission strategies. First, we need the presuppositional apologetics in which to break down the wrong presuppositions of other world views and to offer the Christian one as an alternative. Second, We need interreligious apologetics in which to defend Christianity and reveal non-truthfulness of other religions, breaking down religious relativism. Third, we need to use power game logic, the postmodern's favorite, to evoke their interest in truth. Fourth, we need to use stories and images, another postmodern's favorites, to lead them into a dialogue on truth. Intellectuals in each academic field need to develop the contents for each strategy and let the church use them for mission.

Keywords : Postmodernism, Mission Strategy, Studies, Apologetics, Korean Church Youth.

학문을 통한 선교의 실제적 방법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제기와 진단:

- (1) 문제제기: 한국교회의 젊은 세대의 감소
- (2) 문제 진단: 포스트 모던시대와 선교전략의 부적응

2. 전략

- (1) 전단계 선교(pre-evangelism)과 전제적 변증론(presuppositional apologetics)
- (2) 종교간 변증론 (interreligious apologetics)
- (3) 파워 게임 논리 사용
- (4) 이야기와 이미지의 사용

II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현재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의 감소로 고민 속에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 현상을 교회가 포스트모던 문화로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로 본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에 맞추어 기독교의 메시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지식인들이 자신의 학문 분야의 연구를 통해 기독교 메시지를 이 시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지식과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럼 먼저 한국교회의 젊은 세대 감소에 대한 문제부터 짚어보자.

II 본론

1. 문제제기와 진단:

(1)문제제기: 한국교회의 젊은 세대의 감소

한국교회의 신자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화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수효 감소는 여러모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아멘넷 뉴스는 한국종교사회 학회가 주최한 한 포럼에서 발표된 한국교회의 현 실상의 통계치를 인용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총 인구 대비 개신교인구의 비율 변화는 1985년에서 1995년까지 크게 성장해 16.1%에서 19.7%로 3.6% 상승했고 신자수도 220여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1995년에서 2005년까지는 비율이 1.4% 감소했고 신자 수마저 14만 4천 명이나 줄었다. 그리고 95년에 한국 총인구 대비 개신교 비율이 전 연령 평균 비율보다 높았던 10~40대 비율이 2005년이 되면 1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다. 즉, 전통적으로 젊은 세대가 기독교를 많이 믿었는데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대에서 20대로 옮겨지면서 그 비율이 급감하는 것을 보면 아동부,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이 대학

	1985년	1995년	(증감)	2005년	(증감)	20년 증감
전 연령	16.1	19.7	3.6	18.3	-1.4	2.2
0-9세	14.1	19.3	5.2	19.9	0.6	5.8
10-19세	18.1	22.5	4.4	20.4	-2.1	2.3
20-29세	17.3	19.7	2.4	17.9	-1.8	0.6
30-39세	17.9	20.0	2.1	17.7	-2.3	-0.2
40-49세	14.9	20.0	5.1	17.7	-2.3	2.8
50-59세	12.8	16.7	3.9	17.6	0.9	4.8
60-69세	13.0	16.0	3.0	16.6	0.6	3.6
70세 이상	12.4	17.5	5.1	18.2	0.7	5.8

연령대별 개신교인구 비율 변화 추이(1985, 1995, 2000년) ©뉴스미션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통설이 사실임을 통계적으로 보여준다.¹⁾

더욱 큰 문제는 대학 청년층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는 대학가의 선교단체들의 증언을 들어도 알 수 있다. 예수전도단 충북지역 캠퍼스 담당 권오균 간사의 말²⁾을 들으면 CCC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 절반으로, 예수전도단은 4분의 1 수준으로 그 수요가 줄었다고 한다. 물론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고 어림짐작이지만 현장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증언이다. 정리하면 기존의 개신교 집안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며 잘 자라던 아이들은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원래 비신앙인이었던 대학 청년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들어오기를 꺼리는 대학 청년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를 어떻게 다시 교회로 이끌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살펴보자.

(2) 문제 진단: 포스트 모던시대와 선교전략의 부적응

대학 청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의 타락으로 인한 이미지 저하, 스펙을 쌓느라 종교 활동에 대한 관심도 여력도 없는 분위기, 온라인 게임/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부유한 여건 마련으로 굳지 교회에서 문화적 만족을 얻을 필요가 없는 환경 등등. 물론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그만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와 그것을 따라 잡지 못하는 교회, 신학교, 교인들의 문화적 격차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젊은 세대일수록 그 시대의 문화에 민감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에 많이 젖어 있을수록 그 문화에 역행하는 분위기, 메시지, 환경에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가 현재 문화적 혁명기라는 모더니즘 문화에서 포스트모던 문화로의 격류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교회는 종교 기관의 특성상 전통적인 문화에 머무르게 되기가 쉽고 그것은 이 시대의 문화와 격리되기 쉽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적합한 선교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포스트모던 문화로의 급변은 어떤 변화를 낳았을까?

포스트 모던 문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여러 수많은 책, 논문 등에서 이미 언급되고 상술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그것의 특성을 자세히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단지 이 논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성만을 살펴 본다면 먼저 가치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논리, 또는 교리를 부정한다. 단지 그 시대 그 상황에 유용한 지식과 설명 방식의 파편들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당연히 종교다원주의와 가치의 상대주의만을 절대 진리로 삼을 뿐, 그 밖에 절대 진리란 없다는 전제를 갖는다.

1)

<http://usaamen.net/news/board.php?board=m2013&page=7&category=2&sort=wdate&command=body&no=1300> (2014년 10월 19일 접속)

2) 2014. 4월 경 인터뷰

그리고 절대 진리가 없다는 이 절대 명제는 객관적인 역사도 없다는 추론을 끌어낸다. 단지 각자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역사를 만들어 낼 뿐 객관적으로 고정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을 포함해 모든 진리는 만들어 질 뿐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 접근을 강조한다. 객관적인 굳어진 사실 또는 진리가 없다면 개개인의 취향, 즉, 각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이야기와 이미지가 있을 뿐이다.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인 이성, 논리를 통한 진리의 획득은 거부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진리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라 그리고 각자의 감성적 호소에 가장 맞게 만들어지고 들려질 뿐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데이빗 가이슬러, 노먼 가이슬러가 주장하듯, 현 포스트모던 세대는 진리에 대한 지독한 회의주의 때문에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분위기는 학계에서 더욱 발견되는데 만일 모든 진리가 결국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외적 표현 또는 개개인의 취향과 성향의 반영일 뿐이라는 포스트모던적인 전제를 받아 들인다면 진리에 대해 심각한 태도를 갖기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과거에는 진리의 외침에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집중하고 듣기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말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David Geisler, Norman Geisler, 2014: (E-book) Loc 348).

데이빗 가이슬러(David Geisler), 노먼 가이슬러(Norman Geisler)는 현재 대학청년의 선교 방식이 바뀌어야 함을 강변한다. 그것은 이전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4영리로 직접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방식은 작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상대주의가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의 종교 교리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David Geisler, Norman Geisler, 2014: (E-book) Loc 297-347). 무엇보다도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다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4 영리같이 작은 책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포스트모던 시대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거만하게 들릴 뿐이다. 그러니 과거에 절대 진리, 하나의 진리를 믿었던 때는 그래도 들어 보기라도 할 텐데, 지금은 철저한 무관심만 받고 더 심하면 오히려 기독교는 역시 편협하고 오만한 종교라는 편견을 굳힐 뿐이다. 그런데 일반 교회나 선교단체는 아직 이전 시대에 개발된 선교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 우리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했던 잇사갈 사람들(역대상 12:32)처럼 지혜로워져야 할 것이다. 과연 과거와 같은 선교의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할까?

2. 전략

(1) 전단계 선교(pre-evangelism)과 전제적 변증론(presuppositional apologetics)

데이빗 가이슬러(David Geisler), 노먼 가이슬러(Norman Geisler)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전단계 선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evangelism) 전에 그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서 먼저 복음을 듣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전단계 선교 (pre-evangelism)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 상태가 가시밭, 길거리, 돌밭이 아니라 좋은 토양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마가복음 4:8) (Ibid. Loc. 405,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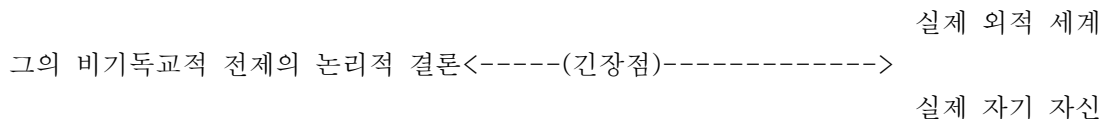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모두가 각자 나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하고 네가 나에게 가르쳐 줄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밭이 돌쫂밭이나 길가와 같은 것이다.

만약 전도 대상자가 신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죄를 규정하는 절대자가 없다고 믿는다면 먼저 그에게는 신이 존재하고 또 그는 특정 행위를 죄로 규정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 작업이 없이는 그가 죄인이라는 교리적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 해봐도 소용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먼저 진화론의 문제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또 어떤 이는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먼저 모든 종교는 다르며 뭐가 다르며 왜 다른 지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Ibid. Loc 423). 즉 먼저 복음에의 걸림돌을 치우는 것이다.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이 접근방식을 전제적 변증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쉐퍼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약 1890년, 미국에서는 약 1935년에 절망의 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왜 그것이 절망의 선이냐면 그 이전에는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공통된 전제를 토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포스트모던적인 가치의 상대주의 속에서 각각이 갖는 기본 전제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졌고, 대화의 다리가 끊어져 모든 사람이 동떨어진 섬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이다. (Francis A. Schaffer, 1995: 14-16)

그래서 쉐퍼는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믿는 세계관 자체의 모순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그 세계관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힌 후에 그 대안으로서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제적 변증론이라 이름을 붙인다. 나에게서는 이것이 진리이고 너에게는 그것이 진리라는 식의 사고방식에서는 내가 믿는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너에게 통할 뿐이라는 식의 반응만 얻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상대방이 믿는 세계관을 먼저 격파한 후에 그 대안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Ibid., 11-15, 179-198).

쉐퍼는 사르트르와 까뮈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들의 세계관의 전제의 논리적 결론을 끌어내어 그것과 실제 외적 세계와 실제 자기 자신과의 긴장점을 보여주어 그 세계관의 거짓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Ibid., 186-187).



그들 둘 다 세상은 부조리하고 무의미하기에 인간 각각은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함 주장했다. 하지만 까뮈는 결코 인생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도덕과 윤리에 대해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까뮈는 노벨상 받을 때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도 도덕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르트르는 자신의 믿음의 틀에 더 가깝게 살았고 그래서 까뮈와 많은 논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윤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고 인간 의지/선택이 그를 의미있게 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알제리에서의 전쟁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알제리 성명서에 사인한다 (Ibid.)

이 두 인물은 모두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을 잘 예증해 주며 그들의 세계관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철학적 논증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내면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철학적 세계관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대안 설명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수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윤리 의식이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 해준다.

(2) 종교간 변증론 (interreligious apologetics)

폴 그리피ths (Paul Griffiths)는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필요한 선교원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NOIA 원칙 즉, 종교간 변증론의 필연성 (necessity of interreligious apologetics)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종교 공동체의 대변인 또는 교리 생산자는 다른 종교 공동체의 비판적인 주장에 대해 변증적으로 관계해야하는 인식론적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Paul Griffiths, 1991: 1)

폴은 변증론의 두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그것은 소극적(negative) 방법과 적극적(positive) 방법이다. 소극적 방법은 자신의 종교의 주장과 교리가 공격당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그 공격이 틀렸다고 논증하는 것이다. 적극적 방법은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자신의 종교의 진리성을 논증하며 다른 경쟁 상대가 되는 종교의 비진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Ibid., 14-15).

폴은 각 종교는 이 소극적, 적극적인 변증론을 펼치는 것이 당연한 윤리적인 자세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종교가 옳다면 그와 경쟁 상대인 종교는 옳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Ibid., 15-16). 그렇다면 한 종교의 신봉자는 자신의 종교의 진리성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다른 종교의 비진리성을 주장하는 것이 윤리적인 의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나 폴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현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다원주의 분위기다. 현재 모든 종교는 동일한 가치가 있으며 나름 각자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옳은 것이라는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어느 한 종교에 완전히 귀의하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진리성을 강력하게 방어하고 주장하면서 타종교의 비진리성을 주장해야 하는 명분이 여기 있는 것이다.

이런 종교간 변증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재 학계의 새로운 관심의 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폴 그리피ths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규 주류 대학에서 변증학은 주된 학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버드나 시카고의 신학 대학 (Divinity Schools)의 카탈로그에서 찾아볼 수 없고 그것은 자유주의적인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랜 변증학의 전통이 있지만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그 흔적을 잃어 버리게 된다. 오직 극보수 기독교 진영에만 이 학문분야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한다 (Ibid., 2). 이 사정은 한국 내의 신학교나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종교간 변증론의 한 좋은 예는 바로 라드닉 스타크(Rodney Stark)의 과학 혁명은 다른 종교나 철학이 아닌 기독교의 기본 신앙에서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과학사에서는 이미 주류 이론이 된 이 주장을 그는 다른 종교나 철학의 전통과 비교하면서 왜 기독교의 신앙이 진리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며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먼저 기독교의 신학은 신이

자연을 법칙에 따라 정밀하게 움직인다는 신앙 (시편 119:89-90, 솔로몬의 지혜서 11:20)을 내포하며, 그래서 신은 이성적이며 법을 따라 자연을 운용한다는 신학이 고대교부 시대부터 발전했음을 지적한다 (Rodney Stark, 2003, 147-150).

그리고 난 후 스타크는 다른 종교, 철학 전통에서는 왜 과학의 전제가 되는 사고방식이 없었는지를 밝힌다. 맑시스트 역사가인 조셉 니덤 (Joseph Needham)의 연구결과인 중국이 과학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자연의 원리인 도가 너무 미묘하여서 인간이 알기에 어렵다는 주장을 한--그래서 과학 탐구의 심각한 시도를 못하게 한--종교/철학의 전통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리스 경우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직 자연 만물이 살아있어 움직인다는 정령신앙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해 자연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만물이 움직인다는 과학의 전제적 개념을 갖지 못한 점, 또 이슬람의 경우는 신의 절대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신이 자연법칙을 따라 자연을 운용한다는 개념을 너무 신성모독적으로 여겼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Ibid., 150-158).

(3) 파워 게임 논리 사용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진리라는 것이 결국은 기독교 권층의 자기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관점이다. 사실 이 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도 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포스트 모던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류의 주장을 매우 열렬하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이 세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터치할 때 더 많은 관심을 붙잡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진리의 대화에도 무관심한 이 세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다.

사실 이런 종류의 논법은 반기독교의 진영에서 먼저 사용하였다. 그것은 바로 덴 브라운이 썼고 그것이 영화화되면서 획기적인 인기를 끌었던 다빈치 코드 (덴 브라운, 다빈치코드 (베텔스만, 2004))이다. 다빈치코드의 내용은 기독교가 예수의 추종자들이 여성적 신성의 숭배자들을 억압하고 남성 중심적 지배구조를 위해 인간 예수를 신격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를 후계자로까지 생각했는데 그의 다른 추종자들은 그녀를 창녀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 모든 파워 게임의 대표자로서 콘스탄틴 대제는 그의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수의 신성을 날조하고 남성통치구조에 잘맞는 4복음서만을 정경으로 채택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는 마리아를 교회 후계자로 원했다고 기록한 다른 80개의 복음서들은 모두 거부되었다는 것이다.

다빈치 코드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소설 영화의 스토리가 포스트 모던적인 이야기구조--즉, 파워 게임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 권층에 의해 조작되고 만들어졌다는 것--를 갖는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코드와 딱 들어맞으면서 많은 이들의 심성을 울린 것이다. 이 소설/영화를 비판하는 기독교 측의 많은 책과 논문이 나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어떻게 진리에 철저하게 무관심한 이 세대의 열광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냐는 것이다.

사실 이런 논리를 기독교의 경쟁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힌두교에 충분히 쓸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상당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말이다. 정세근은 힌두교의 계급주의 사상을 비판한다. 힌두교 경전 중 하나인 리그베다에 나오는 이야기, 즉 천지창조 때에 인류의 원형인 푸루샤의 입이 브라만아, 그의 두 팔이 전사계급인 크샤트리아계급이, 두 넓적 다리는 상인 농민이 되고 발에서 노예가 나왔다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 힌두교는 계급제

도를 정당화한다 (정세근, 2009, 27-28). 또한 윤희사상은 현 계급질서를 전생의 선행/악행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해 현 질서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Ibid., 42-43). 그리고 불교 역시 계급제도는 거부하나 힌두교의 윤희사상은 받아들임으로 기존질서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Ibid., 25-26).

즉, 힌두교/불교의 윤희 신앙은 기득권층의 자기 이익의 합리화를 위해 만들어 낸 창작물일 뿐이라는 논리를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힌두교라는 종교의 기본 틀 (베다 경전)을 기원전 1000년 경에 인도 아리안족이 인도 지역에 침입해 지배계급이 되면서 만들었고 (스가누마 아키라, 2003, 36, 38-39), 윤희사상은 크샤트리아 계급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것 (Ibid., 126)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불교의 경우는 지배계급의 의도적인 시도는 아니었으나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물론 이런 딱딱한 학문적 논의를 통해 힌두교/불교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포스트 모던 세대의 관심을 끄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종류의 논법을 써야 진리에 철저하리만큼 무디고 무딘 이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 철학 등의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 논리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교 대조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4) 이야기와 이미지의 사용

위에서 살펴보았듯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이성과 논리로 객관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모더니즘 시대의 명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 보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감성적인 어필에 더 매력을 느낀다. 이런 감성주의는 자칫 주관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매우 좋은 접근 방식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세대에게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해서는 차가운 무관심만 받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야기와 이미지를 통한 감성적 접근으로 먼저 진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지적하듯이 이 시대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성서학의 연구 경향 변화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을 영속적인 개념의 형태로 환원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포스트모던 시대 성서학은 성서 속의 이야기 구조와 그것의 분석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70년 이후에는 신학과 철학에서도 이야기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철학의 경우에 이런 경향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바로 Paul Ricoeur, Alisdair MacIntyre, Charles Taylor 등이다. (Alistair E. McGrath, 2012: 138).

그리고 이런 이야기와 이미지의 사용은 단지 이 시대의 관심만을 이끌어 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이야기와 이미지는 그 자체로 훌륭한 설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야기는 그 자체 안에 각각의 관점과 세계관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서 속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N. T. Wright이 지적하듯 우리는 성서 속 이야기를 들음으로서 1.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2.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삶) 3. 문제가 무엇인지 (죄로 인해 어그러진 상태임) 4.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회복) 를 알게 된다. (N. T. Wright. 1992: 132).

그리고 Wright이 주장하듯 성서 속 이야기를 함으로 우리는 권위와 권력의 관점과

같은 세상의 세계관에 필연적으로 도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세상의 전체적인 관점에 상해를 입히고,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게 된다 (N. T. Wright, 1991: 7-32). 성경 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경쟁상대가 되는 세계관에 기초를 둔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청자는 어느 이야기가 나와 세상을 더 잘 설명하며 문제와 해결책을 더 잘 제시하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성경 속 이야기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본질에 대한 원형적 이야기가 많다. Montgomery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예를 든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주는 마녀에 의해 죽은 것 같은 상태의 잠에 빠져든다. 여기서 그녀가 깨어나갈 방법은 없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유일한 방법은 예언에 의해 오기로 되어 있는 왕자가 와서 구원해 주어야 한다. 그 왕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공주의 성 주위를 덮은 가시덤불을 꿰뚫고 들어와 사랑의 입맞춤을 해야 한다. 그 때 공주는 구원을 받으며 왕자와의 결혼식과 만찬이 이어지고 그 뒤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John Warwick Montgomery, 2002: 186). 이 이야기가 시대와 민족, 지역을 초월해 인기를 얻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곤경과 그것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발굴하고 또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성경 속 이야기 뿐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이야기들을 발굴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학문 분야에서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Carl Jung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상징들, 신화 민담에서 나오는 보편적 상징 패턴들 (Joseph Campbell, Kucien Levy-Bruhl 등), 종교학 (Mircea Eliad 등), 인류학 (Claud Levi-Strauss) 등에서 원초적 감성을 건드리는 이야기/이미지들의 연구를 해놓았다 (Craig J. Hazen, 2009: 100).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탐구하고 계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과 연결해 해설하는 과정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물을 통해 이 세대의 관심을 끌면서 기독교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젊은 세대에 기독교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은 1. 경쟁이 되는 학문, 철학 등의 세계관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먼저 밝히는 전제적 변증론, 2. 경쟁 상대가 되는 종교의 비진리성을 밝히는 종교간 변증론, 3. 경쟁 상대가 되는 다른 종교/철학/학문학파의 주장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르는 것임을 밝히는 파워게임논리 사용, 4. 포스트모던 세대의 관심을 끌어내며 설득력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이미지와 그 해설의 계발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풀은 종교간 변증론을 펼쳐야 할 사람들은 각 종교 공동체의 지식인들이라고 주장한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겠지만 일반인은 그것을 할 만한 시간도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즉 NOIA 원칙은 각 종교 공동체의 지식인들을 위한 의무가 된다는 것이다 (Paul Griffiths, 1991: 8-9) 이 원칙은 위에서 이야기한 종교간 변증론 외에 3가지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의 계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각 학문 분야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학문 분야의 연구를 통해 위의 전략의 구체적인 콘텐츠를 계발하여 교회와 다른 기독교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usaamen.net/news/board.php?board=m2013&page=7&category=2&sort=wdate&command=body&no=1300> (검색일 2014년 10월 19일)

아멘넷뉴스 2009. 10.5. “[한국 종교인구의 변동 ①] 종교별 종교인구의 변동”

스가누마 아키라 (1993). 「힌두교」. 서울: 여래.

쉐퍼, 프란시스 (Schaffer, Francis) (1995). 「거기 계시는 하나님(The God Who Is There)」. 서울: 생명의 말씀사.

정세근 (2009). 「윤회와 반윤회」. 충북: 개신.

Geisler, David; Geisler, Norman (2014). *Conversational Evangelism*. Eugene: Harvest House Publishers.

Griffiths, Paul J (1991). *An Apology for Apologetics*. New York: Orbis.

Hazen, Craig J. (2009). “Capturing the Imagination Before Engaging the Mind” in Sean McDowell (ed.) (2009). *Apologetics for a New Generation*. Eugene: Harvest House Publishers.

McGrath, Alister E. (2012). *Mere Apologetics*. Grand Rapids: Baker.

Montgomery, John Warwick (2002). *Tractatus Logico-Theologicus*. Bonn: Verlag für Kultur und Wissenschaft.

Stark, Rodney (2003). *For the Glory of Go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right, N. T. (1992).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Minneapolis: Fortress.

Wright, N. T (1991). "How can the Bible be Authoritative?" *Vox Evangelica* 21. 7-32

논평

학문을 통한 선교의 실제적 방법론
논평자 권태경 (충신대학교)

오늘날 교회와 선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젊은 세대의 선교 전략으로 4가지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전제적 변증론, 종교간변증론, 파워게임논리사용, 이야기와 이미지 사용이 그 구체적인 대안이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선교의 대안적 전략이 필요한 포스트모던 시대에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논문은 구체적인 선교의 학문적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평자는 저자의 의도를 잘 드러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으로 논평에 대신하고자 한다.

1. 선교 전략의 대상이 젊은 세대라고 하는데, 그 연령층이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발표자의 4가지 선교 전략이 이 젊은 세대에 국한 할 필요가 있는가?
2. 본론 II 1 (1)의 ‘문제제기’와 (2)‘문제진단’이 서론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 논문의 구성상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문제 제기와 문제 진단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교회 성도의 감소가 선교 전략이 부재한 이유도 있겠지만, 포스트모던 문화의 시대적 상황의 결과이기도 한 것 아닌가!
3. 선교의 전략으로 제기한 용어 4가지 대안이 익숙한 용어가 아닌데, 좀 더 분명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발표자가 사용하는 4가지 전략방법이 다른 연구자도 제안한 방법론인가 아니면 발표자의 독창적인 제안 인가?

교회의 사명으로 이 선교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이 글은 국내외 선교현장에 하나의 이론적 대안을 제안하는 논문으로 매우 시기 적절한 글이라고 생각하며, 발표자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